투데이 칼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나눔 가득한 따뜻한 장수가 되기를

이 길 재
장수군 장계면장

"사정이 있어 공적지원은 받기 어려웠는데, 면에서 또는 지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집도 고쳐주시고 의료비, 생필품 등도 해줘서 당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들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도 책임감과 고민을 하게 된다.

복지허브화란 행정업무 중심이었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가 지역복지의 중심이 돼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발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다.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도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10년 10월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 취약계층 등 보행취약계층을 위해 소재지 주요도로에 쉬어 갈 수 있도록 의자를 7개소에 배치하고 장애인 청사출입의 편의를 위해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노인 무료 급식 밥퍼 봉사활동 운영, 행복드림 나눔냉장고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복지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네복지(지역사회복지공동체)실현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한계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민간과 공공의 창의적 협력, 제도복지와 지역복지의 협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관협력이란 지역의 사회적 활동주체인 민간과 공공의 개인, 집단, 조직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다.

이에 좀 더 가까이 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지역의 핵심인력 활용이다.

능동적 참여자로서 주민리더(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기관단체 등 그리고 촉진적 행정가로서 담당 공무원이다.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크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성에 기반한 민관협력가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가장 고민한 부분이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사람을 잘 조직하는 것, "사람이 답이다."의 명제로 정립하여 무엇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 소통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협의체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실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기획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꿈꾸는 공부방 꾸미기', '사랑愛 카네이션달아드리기', '미리 크리스마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허브화연합모금사업' 등 나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나눔분위기 확산을 위해 면민의 날 행사 시, 민간 후원으로 '일일카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0여 만 원의 수입금을 얻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공공예산이 아닌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짧은 기간이나마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를 통해 나눔 사업을 실천하면서 많은 감동이 전해왔다.

공동체 회복은 우리 모두의 공동숙제라고 본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현실상 고령 인구가 많은 데 13세대의 소통과 공감으로 동네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13세대가 어우러지는 경로당 방문의 날 운영, 설·추석명절, 어버이날, 연말연시 등에 어린이집에서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초청하여 율동과 노래 등의 공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 등을 연계해서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고취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성숙한 의식전환으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로 나눔이 가득한 따뜻한 장수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 설

식탁물가가 걱정이다

식탁물가가 걱정이다. 폭염철 식재료들이 '폭염경보'를 울리고 있다. 한꺼번에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더 높은 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과 남원 쪽의 경제 몰락 이후 어두운 소식만 밀려들더니 이제는 식탁 물가마저 서민들의 속을 뒤집고 있으니 답답하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노지 채소 가격과 관련해 고민을 좀 해줘야겠다.

지금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저번에 통계청이 보고한 것을 다시 상기해야겠다. 우리 전북의 현실이 가난한 지역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전남보다도 못하다니 문제이다. 정말이지 가난한 세대의 살림살이 형편이 난감하다. 도내의 근로 빈곤층 중에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 그것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생활이 빠듯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식탁물가 고민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이 특히 그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지싶다.

도민 열 명 중에 네 명 꼴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예전의 보도도 다시 생각난다. 그때의 그 보도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다. 전북도가 내놓은 것이기에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생각이 많아야한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말의 요지는 분명하다. 도내의 영세한 빈곤층의 입장을 살펴줘야겠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버거워하고 있다. 그에 대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겠다.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됐는데 전북도가 그 까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해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좋으려니와 그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미래가 없다. 서민들이 식탁물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겠다.

청년 고용 현실 개선돼야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업들은 청년 고용의 분위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야겠다. 도내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고용 분위기가 여전히 답답하다. 왜 그럴까.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아니 그보다는 아예 마음이 없어서 그럴 거라는 짐작이다. 청년 취업 성적표가 초라한데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고용 분위기를 시원하게 해줘야 갖는데 그게 언제고 말뿐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촉구한다. 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사를 쓸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기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하다. 지역 인재 채용 문제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이다. 청년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는 평이 괜한 것이 아니다.

요즘 시간 당 최저 임금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접수와 알바생들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되겠다. 정부의 정책이 접주와 알바생들 간에 일력을 만들고 있다지만 그것은 핵심을 꿰뚫지 못한 안목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여전히 제인심업주와 건물주들은 배부를 채로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딴 세상 사람이 되어 항상 잔치판이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지키는 것 뿐이다.

전북도는 계약직 일자리마저 잘릴까 염려해야 하는 이들의 정서를 역지사지해야겠다. 청년 고용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공개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기니와 청년 고용은 전북도내 그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년 고용 분위기를 숨이 닥힐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당부하기니와 다시 청년고용 분위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야만 되겠다.

독자제언

여름 휴가철, '빈집사전신고제' 신청하세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곡, 바다 등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가족단위나 친구단위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요즘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연스레 집을 비워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어떻게 빈집털이를 예방해야 할까?

우선, 집에 있는 창문이며 베란다 등 출입구가 될 수 있는 곳의 잠금장치는 한 번 더 확인해야한다. 빈집털이범들은 주로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쉬우니, 잠금장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신문이나 우유가 집 앞에 쌓이는 것보다 미리 연락을 취해 배달을 미뤄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 '빈집사전신고제'를 예약하는 방법도 있다. '빈집사전신고제'란, 집을 비울 경우 경찰관들이 순찰을 강화하여 방범 상황을 체크 하는 등 실시간으로 문자로 통보해줘 집주인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제도 이다.

이제 집을 비우고 여름 휴가를 떠날 때에는 안심하고 다녀오도록 하자.

구보빈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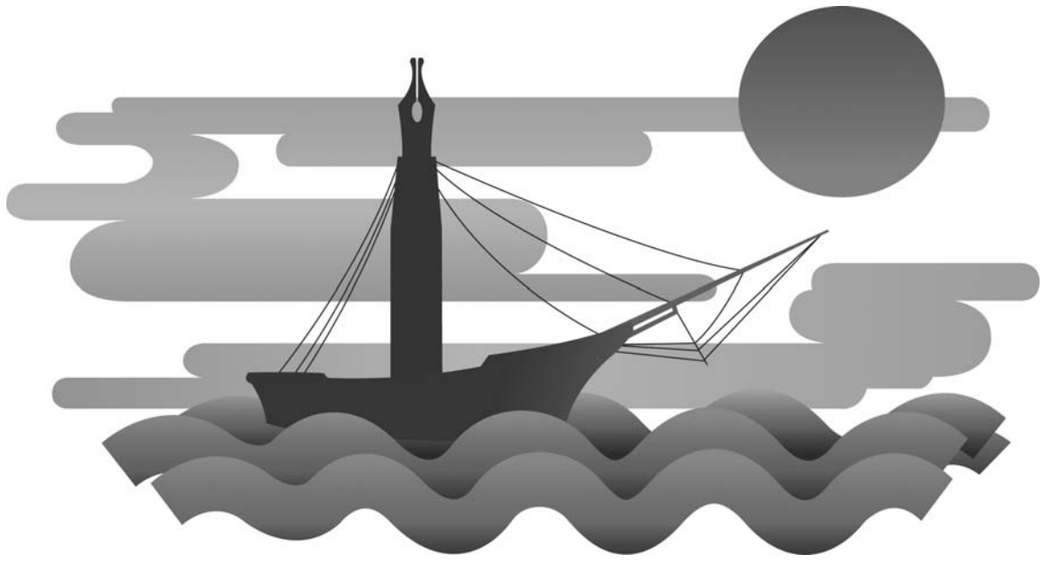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北위성발사장 해체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곧 송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